

히잡

Hijab

히잡은 여성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율입니다.

1. 이슬람
2. 알라 ALLAH
3. 예언자 무함마드
4. 꾸란
5. 오해와 진실
- 6. 히잡**
7. 돼지고기와 술
8. 삶의 목적
9. 예수
10. 내세
11. 여성억압
12. 이슬람의 5기둥

“믿는 남성들에게 말하라!

그들의 시선을 낮추고 정숙하라 하니

그것이 그들을 위한 순결이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아시니라.

믿는 여성들에게 말하라!

그녀들의 시선을 낮추고 순결을 지키며 밖으로

나타내는 것 외에는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아니

되니라. 그리고 가슴을 가리는 머리 수건을 써서...”

꾸란 24:30-31



이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jmbooks@hanmail.net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www.msak.org

chatislamonline.org/ko

blog.naver.com/eunsuya

blog.daum.net/islamforyou

제작: 젠나무민북스(jannahmuminbooks.com) Made by **JannahMuminBooks**

1. 이슬람
2. 알라 ALLAH
3. 예언자 무함마드
4. 꾸란
5. 오해와 진실
- 6. 히잡**
7. 돼지고기와 술
8. 삶의 목적
9. 예수
10. 내세
11. 여성억압
12. 이슬람의 5기둥

MSAK

Muslim Student Association of Korea

이슬람은 삶의 전반에 걸쳐 인간에게 가장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데, 이는 의복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의복이 인간의 신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슬람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갖추어야 할 의복의 기준이 있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배꼽부분부터 무릎까지를 반드시 가려야 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얼굴과 손을 제외한 신체의 모든 부분을 가립니다. 남성과 여성의 의복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은 각각의 몸이 다르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슬림 남녀 모두에게 있어 올바른 옷차림을 갖추는 것은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이슬람에서 여성이 갖추어야 하는 옷차림을 ‘히잡’이라고 하는데 히잡은 여성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율입니다. 히잡을 갖춘 여성은 창조주의 뜻에 순종하는 고귀한 신앙인이자 억압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히잡의 옷차림 안에서 여성은 외모에 치중하는 삶이 아닌 내면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히려 패션의 흐름에 따라 수시로 새로운 옷을 구입해야 하고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데 엄청난 돈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현대사회의 여성들이야말로 진실로 억압받는 존재됨을 주목해야 합니다.

간음과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온전한 법이나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히잡은 여성을 온갖 성범죄로부터 예방하는 최선책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무슬림은 이성을 성적으로 유혹할 수 있는 옷차림뿐만 아니라 모든 언행 또한 삼가야 합니다. 다음의 꾸란 구절을 살펴보면 창조주께서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먼저 정숙을 명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 남성들에게 말하라! 그들의 시선을 낮추고 정숙하라 하니 그것이 그들을 위한 순결이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아시니라.

믿는 여성들에게 말하라!

그녀들의 시선을 낮추고 순결을 지키며 밖으로 나타내는 것 외에는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아니 되니라. 그리고 가슴을 가리는 머리 수건을 써서...”

꾸란 24:30-31

이슬람에서 말하는 ‘간음’이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성욕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합법적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성적 욕구를 ‘마음으로’ 갖는 것까지도 ‘간음’으로 간주합니다.

매스컴은 이슬람 여성의 고귀한 옷차림에 대해서는 여성억압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요즈음 여성들의 과도한 신체노출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이슬람에서 여성은 자신을 누구에게나 쉽게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의 옛 여성들의 의복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쓰개치마’는 한국의 옛날 양반계급 여성들이 외출 시 얼굴을 가리기 위해 썼던 쓰개이며, ‘장옷’은

조선 시대 부녀자들이 외출 시 얼굴을 가리기 위해 사용한 쓰개입니다. 이러한 의복들은 히잡과 마찬가지로 외출 시 여성의 신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보호하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무슬림 여성이 외출할 때에는 얼굴과 손을 제외한 신체의 모든 부분을 가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슬림 여성의 복장은 한 가지 스타일이나 색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나라마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검은 색을 주로 입으며 또 어떤 나라는 아주 다양한 색의 히잡을 착용합니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상관없이 겉으로 올바른 옷차림을 하였더라도 마음이 정숙하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히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슬람에서 마음과 행동은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